

“古下는反託주장한 민족주의자”

慎道晟전장관 암살범韓씨 주장 반박

서울대 정치학과 교수
를 거쳐 통일원장관
을 지낸 慎道晟(75·大
田中구太平동 삼부아파
트)는 일본에 살고 있는
古下 宋鎮禹선생 암살범
韓弘健씨(75·구명 韓賢
宇)가 신탁통치를 찬성
한古下를 암살했다고 주장
한데 대해 『타임』은 “
거짓말”이라고 반박했다.
慎씨는 23일 『古下가
암살되기 하루전인 19
45년12월29일 오후 9
시 한민당 당사가 있던

동아일보 사옥 2층 사장
실에서 古下를 만났다』
며 『古下가 당시 모스크바

이를 상의하기 위해 金九
선생을 만나러 나간 뒤
이를 날 새벽 암살했다』
고 밝혔다.
慎씨는 『사장실에는
당시 한민당의 당수이자

이 함께 있었다며 『古
下를 암살한 韓씨는 테
러리스트며 그가 古下를
찬탁주의자이자 매국노
로 몰고 있는 것은 자신
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

던 한민당』 물론 공산
주의 계열에서도 신탁통
치를 반대하던 때였다』
며 『한민당의 당수였던
古下가 신탁통치를 찬성
해 암살했다는 韓씨의
주장은 터무니 없는 것』
이라고 강조했다.
또 古下가 공산주의자
인 呂運亨선생을 주석으
로 삼으려 했다는 韓씨
의 주장에 대해 『당시 呂
運亨선생이 공산주의와

“暗殺되기 하루전날 信託 소식 듣고 격노”

韓씨 「贊託은은」 暗殺정당화 노린 거짓말

3상회의에서 미국과 소
련이한반도를 신탁통치키
로 했다는 소식을 전해
들고 격노, 반탁운동회를
대대적으로 벌이겠다고

동아일보 사장이던 古下
선생과 한민당 최고위원
적인 8명의 추천(전국
80여의 대표)이었던 서상
일 백관수 조병희씨 등

위한 새빨간 거짓말에
불과하다』고 주장했다.
慎씨는 또 『古下가 암
살되던 45년12월30일까
지는 민족주의를 천명했

민족주의의 중간 계열에
속해 있었다』며 『공산당
의 경우도 古下가 암살
될 때까지만 해도 신탁
통치를 반대하다 3.4

일이 지난 46년 1월 초 부
터 신탁통치를 찬성하고
나섰다』며 韓씨의 주장
을 반박했다.
慎씨는 『古下 암살사건
은 대표적인 정치테러인
데도 아직 그 배후가 밝
혀지지 않고 있어 아쉽
다』며 『사건발생 당시
는 8.15해방후 얼마
안된 극도의 혼란기였기
때문에 古下 암살사건에
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
뤄지지 않았다』며 『이번
기회에 철저한 조사가
이뤄져야 할 것』이라고 말
했다.
慎씨는 서울대 초대정
치학과 과장(46년) 동아
일보 노년위원장(52년) 3
대민의원(54년) 서울신문
상임간사(58년) 경남지사
(59년) 통일원장관(74년)
국토를 일원화(90년) 등
을 역임했다. <大田 翰>